

◎ 세상의 인상 깊은 여행지

학년

반, 이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공중 도시 마추픽추

해발 2,430m에 자리한 마추픽추(Machu Picchu)는 열대 산악림 가운데에서 놀라울 정도로 아름다운 절경을 자랑한다. 잉카 제국의 절정기에 건설되었으며 가장 놀라운 도시 창조물로 평가될 만한 이 유적의 거대한 벽, 테라스, 경사로는 마치 자연적으로 깎여서 형성된 절벽처럼 보인다.

안데스 산맥의 동쪽 경사면에 있는 이곳의 자연 환경은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아마존 강 상류의 분지를 에워싸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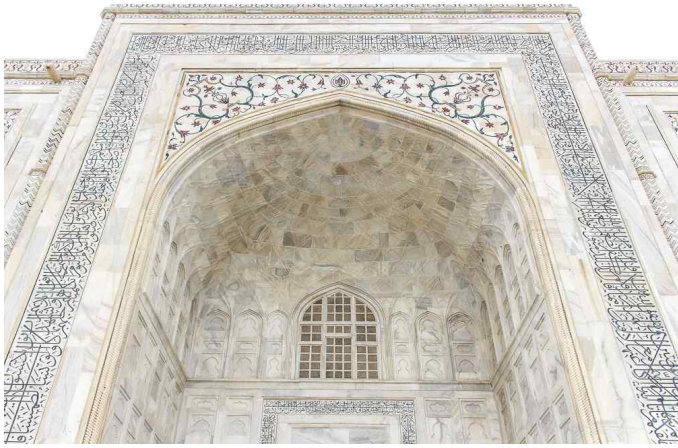
자연의 아름다움, 옐로우나이프 오로라

옐로우나이프는 캐나다 캘러리 북쪽에 있으며, 오로라* 관측지로 유명하다. 그 주변 수역은 한때 '구리 인디언' 또는 '옐로나이프 인디언'으로 알려진 지역의 덴 부족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

낮에는 스키, 눈썰매, 메이플 시럽 시식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고, 밤이 돼서야 오로라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그러나 항상 오로라를 관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오로라를 제대로 보려면, 밤이 긴 11월부터 2월까지가 가장 적기이다.

*오로라(aurora): '새벽'이란 뜻의 라틴어로, 1621년 프랑스의 과학자 피에르 가센디가 로마신화에 등장하는 여명의 신 아우로라(Aurora, 그리스 신화의 에오스)의 이름을 딴 것이다.



완벽한 대칭, 타지마할

1631년~1648년 무굴 제국의 황제 샤자한(Shah Jahan)이 사랑하는 아내를 추모하기 위해 아그라(Agra)*에 건립하였으며 그의 무덤이기도 하다.

흰색 대리석으로 지은 웅장한 모양인 타지마할은 인도 이슬람 예술작품 가운데 가장 훌륭한 작품이며, 세계 유산의 최고 걸작이다. 수로는 완벽한 좌우 대칭으로 지어진 타지마할이 온전히 반사되어 비치도록 설계되었다.

타지마할의 내부는 갖은 진귀한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었으나 대부분 약탈 당했다.

*아그라(Agra): 인도 북부 우타르프라데시주 서부에 있는 도시.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건축물,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있는 로마가톨릭교의 성당으로 네오고딕 형식의 3개 출입구가 있는 형태이다. 1883년에 건축이 시작되었지만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건축물이다. 이 작품은 독특한 건축학을 가지고 있는 안토니 가우디(Antoni Gaudí, 1852~1926)가 설계했다.

그는 건축 요소로 곡선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축가로 자연의 모습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다고 한다. 화려하게 채색된 타일을 많이 사용하여 동화속 건물처럼 환성적인 모습이 특징이다.

가우디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 가난한 이들을 위한 교회가 되도록 설계했으며 건설 자금은 기부를 통해서만 충당하게 되어 있다.

